

베를린 장벽길따라 평화를 향해 걷다

프로젝트명	베를린 장벽길따라 평화를 향해 걷다
배경	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베를린시, 하늘색이 서베를린, 보라색이 동베를린이었고,• 서베를린은 동독 안에 있는 섬처럼 되어있었어서 빨강색선처럼 약 155km길이의 베를린장벽이 뱅 둘러 있었음.• 민화협은 이 베를린장벽을 완주하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“장벽길따라 평화를 향해 걷다” 프로젝트를 작년 10월5일에 민화협 이종걸의장과 함께 한번하고 사정상 지속하지는 못했음.• 그래서 단일 진행만으로 지속적으로 걷는 일은 쉽지않아 완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약 155킬로미터의 길이를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나누어서 걸어 완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함.• 원래 스마트폰 이용이 용이한 앱을 제작하여 각자 걷는 구간을 표시하고 사진과 느낌 혹은 중요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할 생각했으나 재정상 불가능하여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도움을 받아 웹페이지를 만들기로 함

<p>사업내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☉ 웹페이지 제작 및 운영 ☉ 웹페이지에서는 걷는 구간을 정확히 표시할 수는 없으나 점으로는 가능. ☉ 걸면서 만나는 것들(기념적인 것들이든 아닌 것들이든 본인이 의미를 둘 수 있는 것들) 혹은 느낌 등을 사진과 글로 표현하여 웹상에 기재. ☉ 그 점을 누르면 그곳을 걸었던 사람들과 그들의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함. ☉ 이 기록들은 나중에 펀딩으로 자금이 마련될 수 있다면 책으로 발간 가능 ☉ 중요한 점은 보통의 웹페이지처럼 관리자 몇 사람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☉ 회원가입한 사람들이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는 대신 이상한 글은 삭제수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함. ☉ 추가로 지도에 한 지점을 표시하고, 예를 들어 브란덴부르크문, 거기에서 그동안 열렸던 한반도 평화 통일관련 집회 등을 기록할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음.-베를린에서의 한반도평화통일운동을 어느정도 정리할 수도 있음 ☉ 웹 홍보는 언론기사나 sns를 통해서 함
<p>기대효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☉ 약 157,4킬로미터 길이라 조금씩 나눠걸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완주할 수 있고 ☉ 더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평화를 생각하는 계기가 됨. ☉ 기록이 많이 모이면 책으로 발간하여 이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바를 널리 알릴 수 있음



작성: 정선경